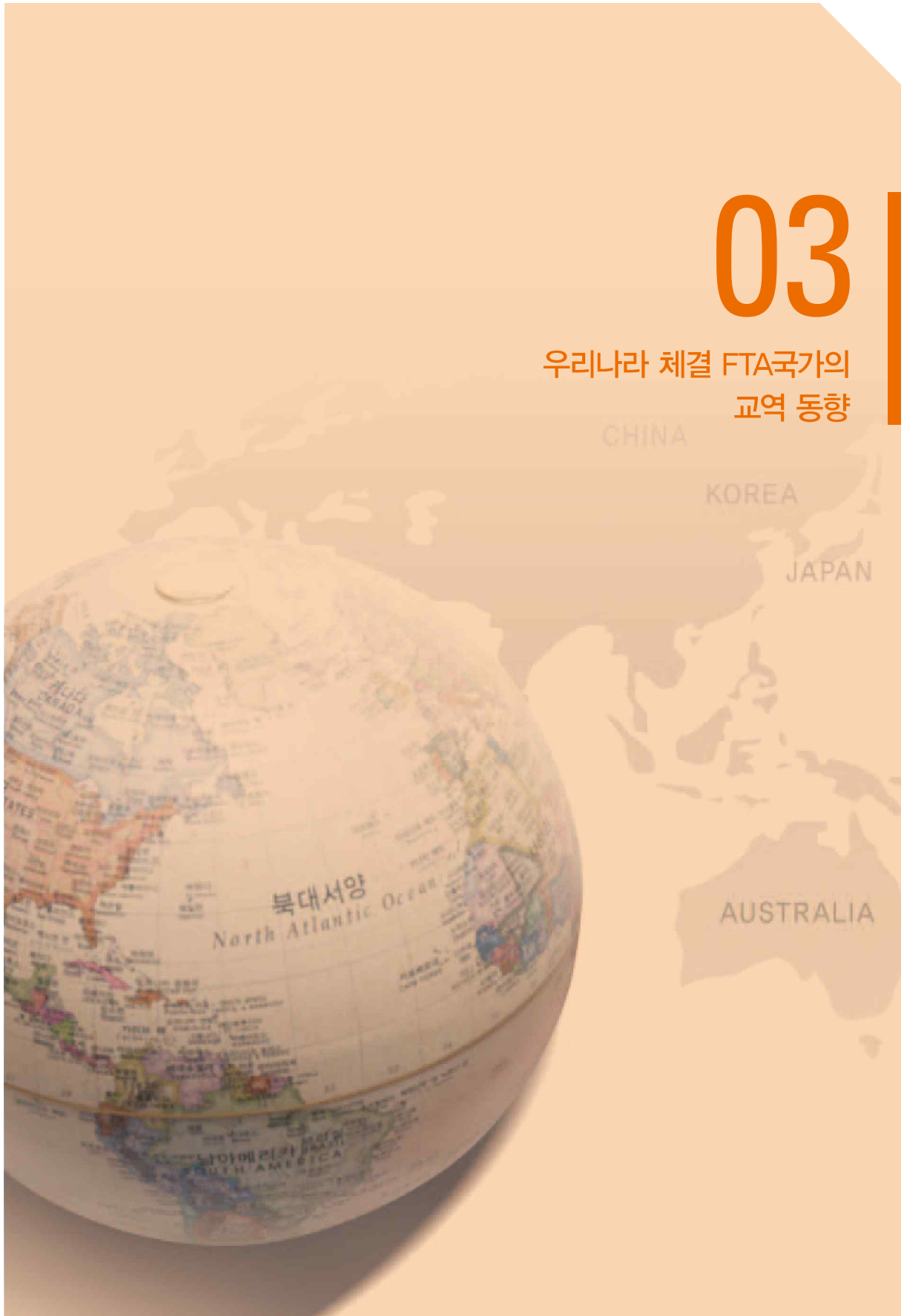


# 03

우리나라 체결 FTA국가의  
교역 동향



### 03. 우리나라 체결 FTA국가의 교역 동향



- 분석 배경 : ASEAN은 1980~1990년대 연간 7~8%의 고도 경제성장을 이루어낸 동아시아의 신흥 경제권이며, 현재는 내수 잠재력이 크고 중국을 대체할 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다. 인도 역시 12억 인구의 거대 시장을 자랑하며, 한·인도 CEPA 양허안에 따라 시간이 갈수록 관세감축 효과가 크게 나타나, 양국간 교역 증가 또한 기대된다.<sup>23)</sup> 이에 이번호에서는 우리나라의 FTA 체결국 중 아세안과 인도를 통해 FTA 체결 전후 산업의 변화, 협정 발효 전후 한국·중국·일본 교역에서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아시아 권 국가와의 FTA 이행현황과 이를 통해 나타나는 시사점을 살펴본다.
- 분석 범위 : 아시아 경제권과의 FTA(ASEAN, 인도)

#### I. 우리나라와 FTA 체결국간 교역 현황

FTA 체결국과의 교역비중 약 3배 증가  
(2008년→2013년 1분기)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한·EU FTA가 발효된 2011년 24.7% 증가, 2012년 한·미 FTA의 발효로 34.8%에 이르렀다. 미국, EU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체결 이행은 국가간의 무역장벽을 낮추는 등 FTA 교역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 1) FTA 무역비중 증가

우리나라의 무역 가운데 FTA 체결국과 발생하는 무역규모는 2012년 말 기준 34.8%에 이른다. FTA 교역

| 표 3-1 | FTA 발효국과의 교역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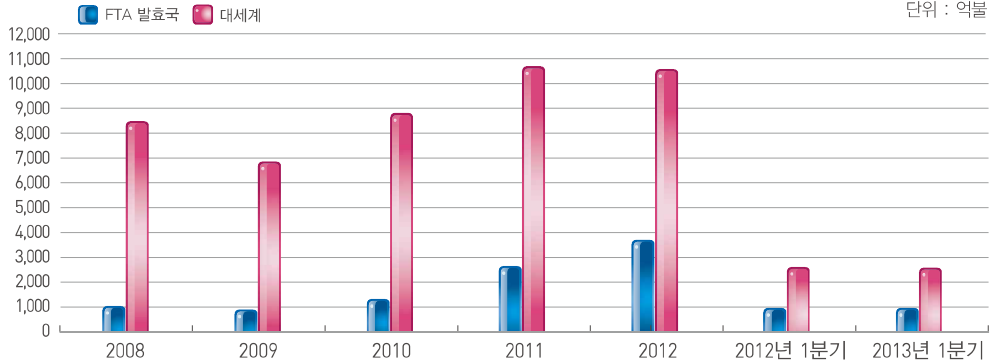
단위 : 억불,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2년 1분기	2013년 1분기
FTA 발효국	수출	548	452	711	1,457	2,044	512	519
	수입	492	417	597	1,204	1,666	426	414
	교역액	1,040	869	1,308	2,662	3,710	938	933
전체	수출	4,220	3,635	4,664	5,552	5,479	1,348	1,355
	수입	4,353	3,231	4,252	5,244	5,196	1,337	1,297
	교역액	8,573	6,866	8,916	10,796	10,675	2,685	2,651
비중		12.1	12.7	14.7	24.7	34.8	34.9	35.2

주 : 연도별 실제 발효국가 기준

23) 한·인도 CEPA 양허안에 따라 5~8년에 걸쳐 균등하게 관세감축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음

| 그림 3-1 | FTA 발효국과의 교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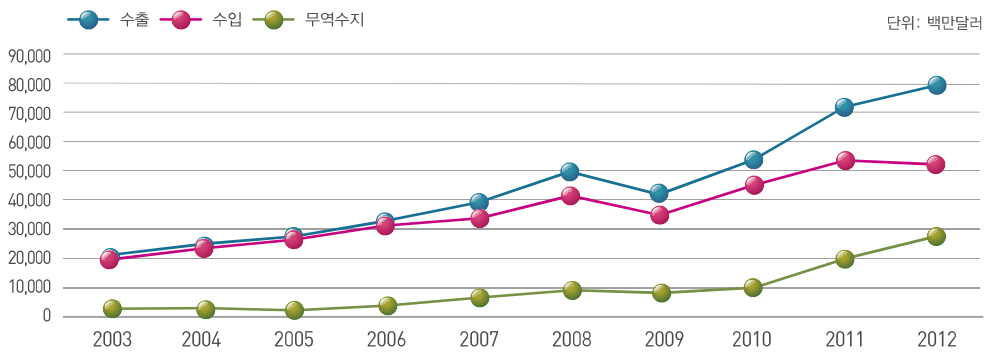
## 2) 한·ASEAN FTA 교역현황

한·ASEAN FTA 발효 이후 무역량 증가 추세 지속  
(무역수지 15.4% 증가: 2007년→2012년)

ASEAN과의 FTA는 2007년 FTA 발효 이후 6년

(‘07~’12년)동안 수출이 약 2.0배, 수입은 1.6배 증가 하였으며, 무역수지는 4.8배 증가하였다. 수출과 수입은 각각 연평균 15.4%,<sup>24)</sup> 수입 역시 연평균 9.4% 증가<sup>25)</sup>추이를 보이고 있다.

| 그림 3-2 | 한·ASEAN FTA의 수출입 현황(2003~2012)



### 한·ASEAN FTA 전후 수출입 품목의 변화

\* 수출증가율이 높은 품목 : 광산물(29.4%) > 농림수산물(25.8%)

\* 수입증가율이 높은 품목 : 석유류(32.1%) > 기계류(23.5%)

24) 2007년:38,749백만달러 → 2012년: 79,145백만달러

25) 2007년:33,109백만달러 → 2012년: 51,977백만달러

03. 우리나라 체결 FTA국가의 교역 동향

FTA 체결 이전 3년('04~'06년) 평균 한국의 對 ASEAN 수출이 활발했던 품목은 전자전기제품(MTI<sup>26)</sup> 1단위 기준으로, 對ASEAN 전체 수출의 약 40%를 점유하였다. FTA 체결 6년차인 2012년에는 평균 약 23.7%로 그 비중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인 전기전자제품의 수출의 절대량은 증가하여 6년('07~'12년)간 연평균 7.5%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동기간 ASEAN의 수출이 증가하였으며, 높은 수출 증가율을 시현한 품목은 광산물로 연평균 29.4%가 증가하였고, 이어 농림수산물이 연평균 25.8%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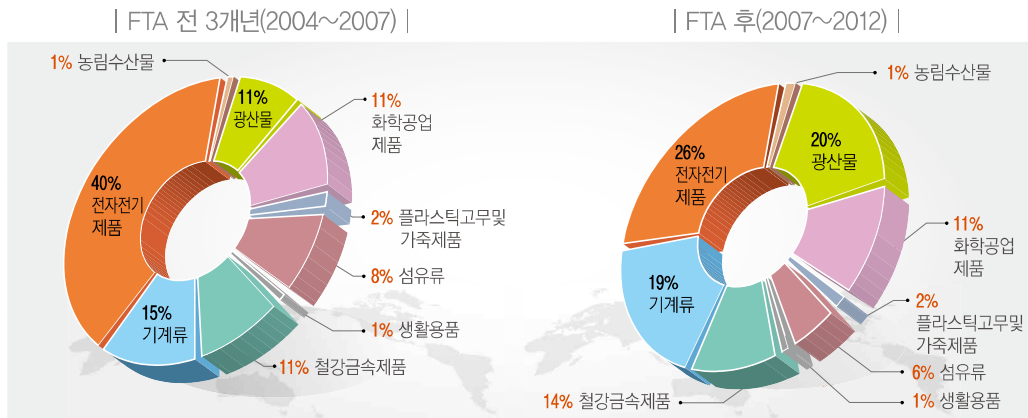
전반적으로 FTA 체결 이전 전자전기제품에만 집중되어 있던 수출구조가 FTA 체결이후 기계류, 철강금속제품, 광산물 등으로 수출품목이 다변화되는 추이가 특징적이다. 특히 기계류 가운데 건설중장비는

2009년 FTA로 인한 관세 철폐와 더불어 인도네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건설산업에 대한 투자 유치 노력 등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수입의 경우 FTA 체결 이전 3년('04~'06년) 평균 對 ASEAN 수입이 활발했던 산업은 광산물(MTI 1단위 기준)이다. 동기간 對ASEAN 전체 수입의 약 37%를 점유하였는데, 이러한 추세는 FTA 체결 이후에도 이어져 2012년에는 40%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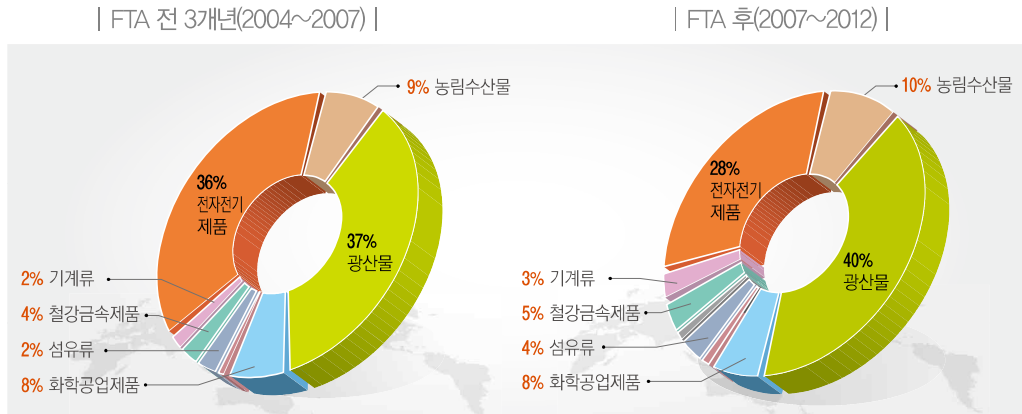
한편 한·ASEAN FTA 체결 이후 높은 수입 증가율을 시현한 품목은 섬유류로 연평균 32.1%가 증가하였고, 이어 기계류가 연평균 23.5%로 증가하였다. 특히 섬유류는 베트남 내에서 최고 외환가득산업으로 부상하는 등 급속도로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對한국 수출도 연평균 45.9%('07~'12년)에 달하고 있었다.

| 그림 3-3 | 한·ASEAN FTA 전후 수출산업의 변화



26) FTA 용어집 13번 참조

| 그림 3-4 | 한·ASEAN FTA 전후 수입산업의 변화



對ASEAN 수입 구조는 FTA 체결 이전 광산물과 전자전자제품에 양분되어 집중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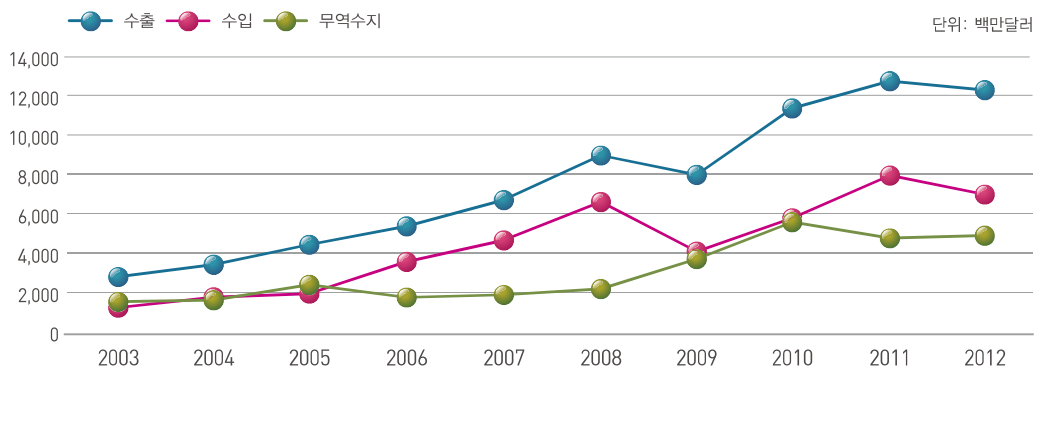
그러나 FTA 체결 이후 원재료 1차 산업인 광산물의 집중이 강화되고, 고차산업인 전자전자제품으로의 비중은 축소되는 추세로 변화되었다.

### 3) 한·인도 CEPA 교역현황

인도와의 교역은 지속적으로 확장 추세, 최근 5년간(2007~2012년) 수출 1.8배 증가

우리나라는 신흥 경제 그룹 BRICs 국가인 인도 시장으로의 진출과 시장선점을 위해 한·인도 CEPA를 체결하였다.

| 그림 3-5 | 對인도 수출입 현황(2003~2012)



03. 우리나라 체결 FTA국가의 교역 동향

한·인도 CEPA 전후 수출입 품목의 변화

\* 수출증가율이 높은 품목 : 광산물(23.4%) >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13.2%)<sup>27)</sup>

\* 수입증가율이 높은 품목 : 농림수산물(34.1%) > 화학공업제품(16.9%)<sup>28)</sup>

2010년 FTA 발효 이후 글로벌 경제 위기 등 세계 경제의 위축으로 3년간('10~'12년) 수출은 정체, 수입은 1.2배 증가, 무역수지는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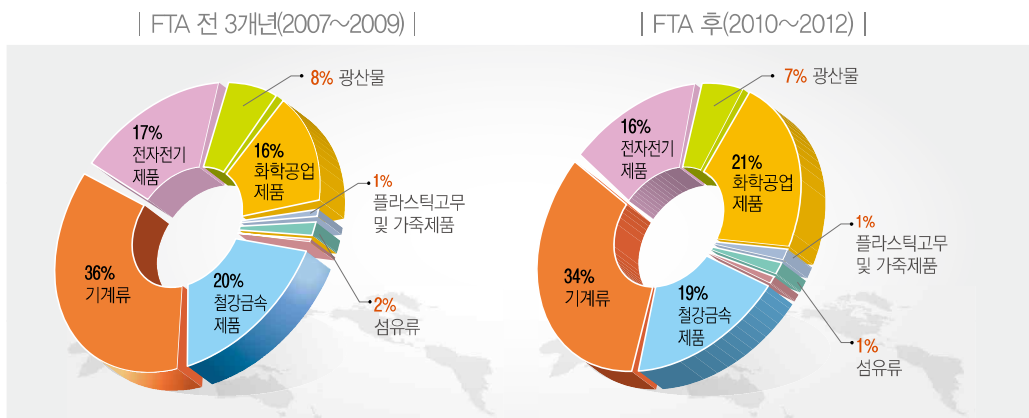
그러나 지난 10년간 인도와의 교역은 증가 추세로 분석되었다.

CEPA 체결 이전 3년('07~'09년) 평균 한국의 인도 수출이 활발했던 산업은 기계류(MTI 1단위 기준)이다. 해당 품목은 인도 전체 수출 비중의 약 36%

를 점유하였고, FTA 체결 이후에도 34%의 비중을 유지하였다.

CEPA 체결 이후 3년간 인도 수출 증가율이 컸던 산업은 한·아세안 FTA와 유사하게 광산물로 연평균 23.4%로 수출이 증가하였다. 이어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이 연평균 13.2% 증가하였다. 그러나 동 품목의 점유율은 각각 7.6%, 1.5%에 불과하여, 전체 수출의 증가를 견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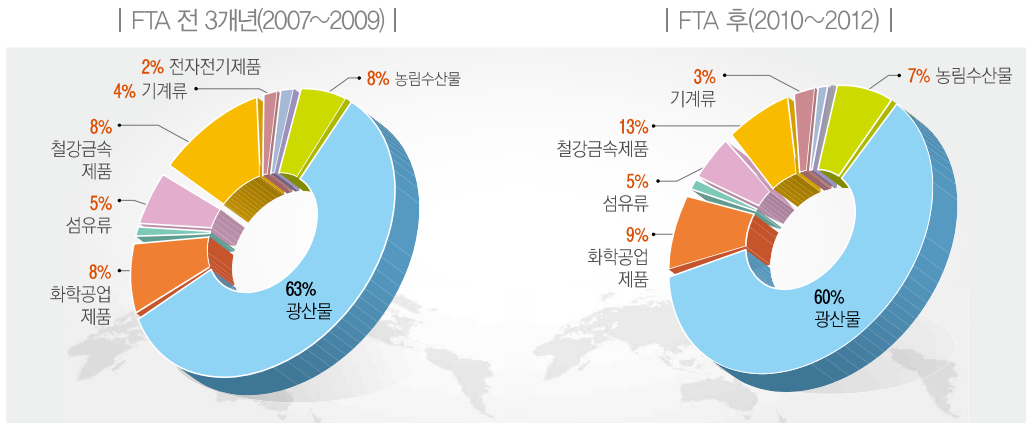
| 그림 3-6 | 한·인도 CEPA 전후 수출산업의 변화



27) FTA 체결 이후 수출 감소 산업:잡제품(10.5%), 전자전기제품(8.2%), 기계류(2.0%), 농림수산물(3.0%) 등

28) FTA 체결 이후 수입 감소 산업: 석유류(13.7%), 잡제품(8.5%)

| 그림 3-7 | 한·인도 CEPA 전후 수입산업의 변화



다음으로 CEPA 체결 이전 3년 평균 한국의 對인도 수입이 활발했던 산업 역시 광산물로 전체 수출의 약 63%를 점유하고 있었다. CEPA 체결 이후에는 약 60%로 소폭 감소하였다. 인도로부터 수입되는 광산물의 주요 품목은 나프타, 알루미늄 과 등이다.

CEPA 체결 이후 3년간 對인도 수입의 증가폭이 컸던 산업은 농림수산물로 연평균 34.1%, 이어 화학공업제품이 연평균 16.9%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對인도 농림수산물의 수입은 CEPA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말 기준 여전히 전체 수입에서의 점유율은 5.8%에 불과하다.

요컨대 한·인도 간 수출입 구조는 CEPA 체결 이전 수출은 기계류, 수입은 광산물에 집중되었던 교역구조가 CEPA 체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양국 교역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특징이다.

#### 4) 아시아 경제권과의 교역특징과 FTA 활용

##### 우리나라와의 수출입이 증가 추세, FTA 체결 이후에도 무역량 증가

ASEAN, 인도 등 아시아 경제권은 신형 경제 성장 동력으로 분류되며, 우리나라와의 수출입이 증가 추세에 있는 지역이다. FTA 체결 이후에도 무역량이 증가하고 있다.

한·ASEAN과 FTA 이행에서 MTI 1단위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 산업에서 수출과 수입이 확장되고 있으며, 수출입의 비중은 산업간 조정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출의 경우 기존에 주력 수출 품목이었던 전자전기 제품의 비중이 감소하고, 광산물과 기계류 등이 증가하는 등 FTA 이후 수출품목의 편중이 완화되었다.

03. 우리나라 체결 FTA국가의 교역 동향

반면 수입은 광산물의 집중이 강화되고 있으며, 전자 전기제품의 비중은 축소되고 있다.

한편 ASEAN과의 교역은 수출입 양면에서 광산물 품목이 확대되고 있으나, FTA 특혜 수출은 윤활유, 기타석유 등 소수 품목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광산물의 FTA 특혜 수입은 활용비중이 90%이상으로 도출된다. 우리나라가 ASEAN으로의 수출시 FTA 특혜세율이 적용가능한 광산물 품목의 총 수입

금액 중 96%이상이 LNG(액상천연가스)와 원유 2개 품목으로 광산물의 FTA 특혜수입을 주도하고 있다.

이와같은 ASEAN으로의 FTA 수출 저조에는 우리나라가 ASEAN으로 수출하는 물품 가운데 FTA 특혜 세율 적용이 가능한 수출의 비중이 35.7%<sup>29)</sup>에 불과하다는 본질적인 한계가 내재되어 있다. 산업별로는 전체 수출에서의 비중이 10%<sup>30)</sup>이상이며 특혜대상 품목의 비중이 50%이상인 기계류, 화학공업제품, 철강금속제품 등의 FTA 활용 촉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 표 3-2 | 한·ASEAN FTA의 특혜 수출입 대상 현황(2012)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수출			수입		
	FTA 대상수출	전체수출 실적	비중	FTA 대상수입	전체수입 실적	비중
광 산 물	638.6	10,765	5.9	14,062	20,038	70.2
기 계 류	4,231.5	7,787	54.3	576	876	65.7
농림 수산물	554.9	934	59.4	2,882	5,470	52.7
생활용품	229.8	407	56.4	711	862	82.5
섬 유 류	2,103.3	4,427	47.5	2,793	3,018	92.5
잡 제 품	117.6	170	69.0	81	88	92.4
전자전기제품	2,677.9	12,167	22.0	1,712	6,434	26.6
철강금속제품	4,393.4	9,780	44.9	904	1,989	45.4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665.4	1,216	54.7	432	454	95.1
화학공업제품	4,093.5	7,571	54.1	1,433	2,813	51.0
합계	19,706	55,225	35.7	25,586	42,041	60.9

주 : MTI 1단위 기준

29) 19,706(백만불)/55,225(백만불)\*100

30) 7,787(백만불)/55,225(백만불)\*100



인도는 광산물과,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등 일부 산업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FTA 체결 전후 뚜렷한 수출입 물품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한편 인도는 총 수출 대비 FTA 특혜 대상이 되는 수출 금액이 68.8%에 달한다. 향후 기업의 FTA 활용 대상 품목 발굴에 의해 FTA 활용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기계류는 對인도 수출의 32.6%<sup>31)</sup>를 점유하는 주요 수출산업으로 FTA 활용 저조 원인에 대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 총 수출에서 FTA 특혜 수출이 가능한 금액이 73.1%에 달하나, 실제 활용비중은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인도에 기계류를 수출하는 기업을 FTA 활용 증진의 주요 타겟 대상으로 선정하여 컨설팅, 교육 등 한·인도 CEPA 활용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표 3-3 | 한·인도 CEPA의 특혜 수출입 대상 현황(2012)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수출			수입		
	FTA 대상수출	전체수출 실적	비중	FTA 대상수입	전체수입 실적	비중
광 산 물	874	900	97.1	182	4,015	4.5
기 계 류	2,806	3,837	73.1	144	164	87.7
농림 수산물	8	9	91.8	330	674	48.9
생 활 용 품	47	48	99.3	17	19	94.1
섬 유 류	97	165	58.8	264	294	89.8
잡 제 품	12	14	87.8	14	40	35.3
전자전기제품	622	1,639	37.9	76	93	81.2
철강금속제품	2,192	2,260	97	338	823	41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62	174	35.6	77	79	97
화학공업제품	1,392	2,741	50.8	546	689	79.3
합계	8,113	11,787	68.8	1,988	6,891	28.8

주 : MTI 1단위 기준

31) 3,837(백만불)/11,787(백만불)\*100

## II. FTA 체결국(ASEAN·인도)에서의 발효 전후 한·중·일 교역 변화

한·ASEAN FTA체결 이후 대한 수출입의 상대적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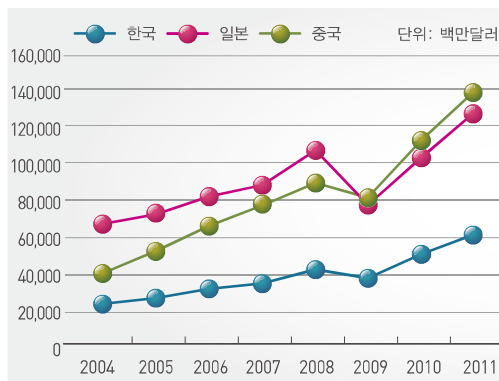
### 1) ASEAN의 對 한·중·일 교역

ASEAN의 對한 FTA 체결전 3년('04~'06년)간 ASEAN 3국(한국, 일본, 중국)의 수출 증가율은 각각 15.2%, 10.9%, 26.6%로 중국, 한국, 일본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ASEAN FTA 이후 3년의 기간을 비교해 보면, 한·ASEAN FTA체결 이후 3년('07~'09년)간 한국, 일본, 중국으로의 수출 증가율은 4.0%, -6.1%, 1.9%로 일본과 중국의 수출 증가율 감소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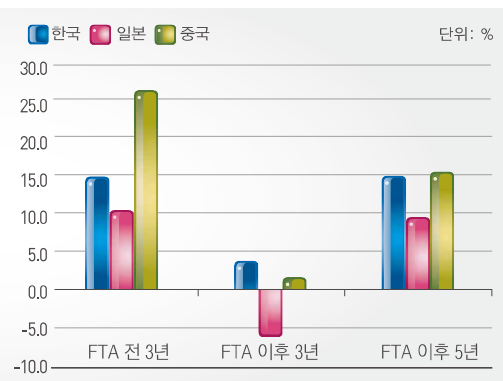
전체적으로 한·ASEAN FTA체결 이후 5년('07~'11년)을 보아도, 對한 수출 증가율은 15.3%로 일본(9.7%)을 상회하고 있으나, 중국(15.6%)과는 유사한 수준이다.

ASEAN의 對한 FTA 체결 전 3년('04~'06년) ASEAN 3국(한국, 일본, 중국)의 수입증가율은 각각 20.1%, 3.2%, 27.0%로 중국의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중국·ASEAN FTA('05.7)가 발효 되면서, ASEAN 시장을 중국이 선점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한·ASEAN FTA 이후 3년의 기간을 비교해 보면, 한·ASEAN FTA체결 이후 3년('07~'09년) 對한, 對일, 對중 수출 증가율은 5.5%, -3.6%, 1.6%로 일본과 중국의 수입 증가율 감소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수출도 동일하다. 당시의 글로벌 위기의 전세계적 여파가 교역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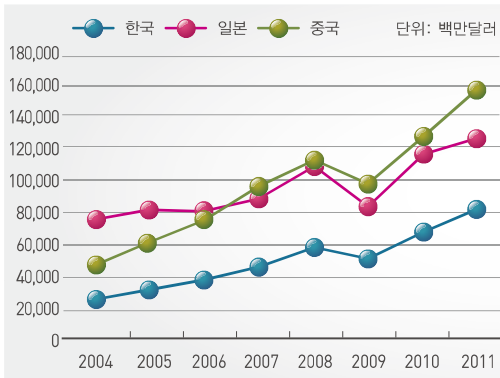
| 그림 3-8 | ASEAN 對한·중·일 수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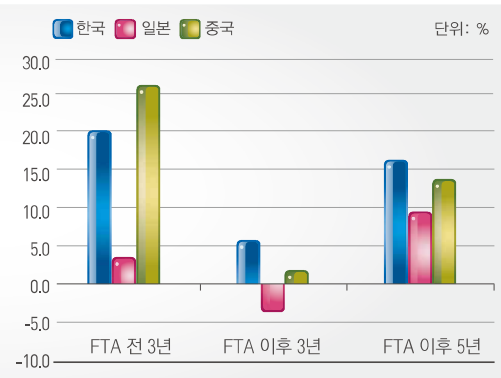
| 그림 3-9 | FTA 전후 對한·중·일 수출증가율 비교



| 그림 3-10 | ASEAN의 對한·중·일 수입 비교



| 그림 3-11 | FTA 전후 對한·중·일 수입 증가율 비교



전체적으로 한·ASEAN FTA체결 이후 5년(07~11년)을 보면, 對한 수입 증가율은 16.2%로 일본(9.2%)을 상회하고 있으나, 중국(13.5%)과는 유사한 수준이다. 중국·ASEAN FTA(05.7), 일·ASEAN CEPA(08.12)가 각각 ASEAN 시장에 대한 한·중·일의 경합이 치열한 가운데, 최근 중국의 경제적 위상 강화와 더불어 한국과 중국의 ASEAN 시장 내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인도의 對 한·중·일 교역

### 한·인도 CEPA 체결 이후 대한 수출입

#### 영향 제한적

인도의 對세계 수출은 5년간(07~11년) 연평균 18.9%의 성장추세에 있다. 한국과의 CEPA 체결전 3

년(07~09년)간 인도의 평균 對세계 수출증가율이 3.6%인 가운데, 對한수출은 16.1%로 CEPA 체결 전 이미 한국으로의 수출은 對세계 수출을 상회하였다. 동기간 일본은 -6.0%, 중국은 -0.2%로 수출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었다.

한·인도 CEPA 체결 이후 2년(10~11년)동안 수출증가율은 對세계 1.4%, 한국 1.3%, 일본 1.2%, 중국 1.1%로 대부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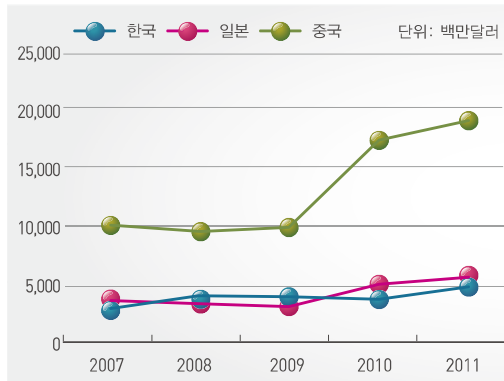
한국과의 CEPA 체결전 3년(07~09년) 인도의 對한 수입은 17.1%로 CEPA 체결 전 한국으로의 수입은 수출과 유사하게 對세계 수입증가율(4.7%)을 상회하였다. 동기간 일본은 4.1%, 중국은 8.1%로 수입이 증가하고 있었으나, 우리나라로의 수입보다는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03. 우리나라 체결 FTA국가의 교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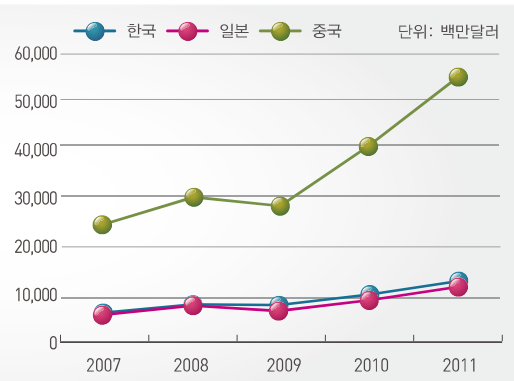
한편, 인도정부는 정책적으로 MFN 세율<sup>32)</sup>을 지속적으로 인하하고 있는데, 그 영향으로 2010년 1월 한·인도 CEPA 발효 당시 양자 특혜세율이 MFN 세율보다 높은 품목이 존재하는 등 모순구조가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한·인도 CEPA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소로서 양국 협조 하에 향후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 그림 3-12 | 인도의 對한·중·일 수출비교



| 그림 3-13 | 인도의 對한·중·일 수입비교



### III. 아시아권 국가와의 FTA 이행과 시사점

#### 1) 한·ASEAN FTA와 교역 : 무역의 확장과 수출품목 재배분

한·ASEAN FTA발효 이후 무역의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07년 대비 對ASEAN 수출은 2.0배, 수입은 1.6배, 무역수지는 4.8배 증가하였다.

ASEAN은 FTA 체결 이후 광산물, 기계류 등의 수출 비중이 증가하였다. FTA 체결 전 전자전기제품에만

집중되어 있던 수출구조가 기계류, 철강금속제품, 광산물 등으로 수출품목의 다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반면, 수입부분의 경우 광산물은 FTA 체결 이전 대 ASEAN 전체 수입액의 약 37%를 점유하고, FTA 체결 이후에는 약 40%로 증가하였다. FTA 체결 전 광산물과 전기전자제품에만 집중되어 있던 수입구조가 FTA 이후 원재료 1차 산업인 광산물은 집중이 강화되고 고차산업인 전자전기제품은 비중이 축소되는 것이 특징이다.

32) FTA 용어집 14번 참조

## 2) 한·인도 CEPA와 교역 : 무역의 확장, 수출입 구조의 유지

인도와의 교역 역시 지속적으로 확장 추세에 있으며 최근 6년간('07~'12년) 수출은 1.8배 증가하였다. 2010년 FTA 발효 이후 글로벌 경제 위기 등 세계 경제의 위축으로 FTA 발효 후 3년간 수출은 정체하였으나, 수입은 1.2배 증가하여 무역수지는 감소되었다.

FTA 체결 전 기계류에 집중되었던 수출구조는 FTA 체결 이후에도 유지되었다. 광산물과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류 등 일부 산업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FTA 전후 수출입 구조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수입 역시 광산물에 절반 이상이 집중되어 있으며, FTA 이후에도 이러한 수입구조는 유지되고 있다.

## 3) 거대 동아시아 경제권 형성 논의 시작, 아시아권 FTA 이행 모니터링 지속 필요

2013년 1분기 현재 우리나라의 총 무역 가운데 FTA 무역 비중이 12.1%('08년) → 35.2%('12년)로 증가하고 있다. 아시아권 국가는 우리나라 FTA 국가 교역 가운데 무역의 약 40%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SEAN과 인도는 성장잠재력이 기대되는 국가군이다. 우선, ASEAN은 발효 이후 5년간 교역량이 2배이

상 증가하는 등 선진국 시장위축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인도 역시 12억 인구의 거대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 다음으로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국가다.

인도는 현재 유로존 재정위기 여파로 수출 둔화 및 고유가, 정치불안으로 다소 침체를 겪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발전가능성이 높은 국가이다.

한편, ASEAN은 한, 중, 일 모두와 현재 FTA를 발효하고 있다. ASEAN 시장진출 및 선점을 위한 삼국간 경합이 치열한 가운데, 중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ASEAN 10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한·중·일·호주·뉴질랜드·인도 6개국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REC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sup>33)</sup>)가 구체화되면서 2013년 5월 제1차 공식 협상이 개최되었다.

추후 성장가능성이 높은 아시아 시장이 가진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세계 GDP의 28.4%를 차지하는 동아시아경제권 통합 논의에 앞서 현재 우리나라가 체결한 아시아 경제권과의 FTA의 이행 및 활용 현황에 대한 지속·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3)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 FTA 용어집 15번 참조